

경기인력개발원 체험수기

성 명	문**	구 분	수료
개발원입학년도 (과정)	2017년 영상편집디자인 위탁과정	소 속	경기인력개발원

○ 제 목 : 사회를 향한 첫 단추

○ 내 용 : 작년 이맘때 나를 되돌아보았다. 현재의 나와는 많은 것이 달랐다. 무언가에 빠져도 금세 질려 하고 어느 것 하나 끝까지 한 것이 없는 나는 영상이라는 분야에 빠지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공부에 흥미를 잃은 나는 수업시간도 나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 강압적인 수업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렇게 1학년은 공부에 흥미를 잃은 채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 후에 2학년이 되었고 나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막과, 편집이 중요한 거 같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런 자막은 어떻게 만들고 편집은 어떻게 하는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영상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것 하나 끝까지 파고들었던 적이 없던 내가 아직까지 유일하게 끝까지 파고들었던 새로운 분야가 생긴 것이었다. 영상에 빠진 이후에 진로 시간 때 장래희망과 흥미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던 내가 처음으로 영상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그 후 담임선생님과의 면담 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 “성현아 어떤 영상의 분야가 재밌다는 거니?” 라는 질문을 나에게 하셨고 나는 그때 내가 무척대고 영상이라는 큰 틀을 좋아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영상편집과 미디어 콘텐츠를 검색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다. 영상편집을 독학으로 처음 진지하게 시도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영상편집은 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나는 전문적인 학원을 처음 다녀보고 싶었다. 부모님한테 영상에 흥미가 생겼고 학원을 다니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다고 말하였고 부모님께서도 내가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영상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밀어주신다고 말씀하였다. 하지만 학원까지의 거리는 왕복 4시간이었고 정신적으로 즐거워도 육체적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전문학원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고 내가 정말 영상이라는 것이 나에게 맞는지 궁금하였다 . 그래서 집에서 혼자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보던 중 그 후 나는 처음으로 에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다루어 봤고 신세계를

발견한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고 꾸미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로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험판을 다운받아서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루 종일 에프터 이펙트만 다루기 시작하였다. 내가 생각했던 영상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그 후에 아버지께서 내가 노력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셨는지 위탁교육이라는 것을 추천해주셨다 나는 그때 위탁교육이라는 것을 몰랐고 검색을 하면서 학교에서 허송세월을 보낼 바에는 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 생각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강하게 반대를 하셨다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고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 아직 어머니께서는 전문학교라는 고정관념이 있으셨나 보다 .. 어머니께 학교에서 허송세월을 보낼 바에는 전문학교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배워서 사회에 나가고 싶다고 며칠 동안 설득한 끝에 나는 경기인력개발원에 입소하게 되었다. 입소하면서 나는 여기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생활한다면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했고,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고 미래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지금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열정이 불타던 나는 학기 초 포토샵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매우 열심히 하게 되었고, 자격증 시험도 보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나는 스스로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 이후에 나는 욕심이 생겼고 다른 자격증에도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일러스트. 포토샵. 프리미어 하지만 항상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다. 자격증 시험을 떨어지기도 하였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였고 프로그램을 만지는 나의 실력 또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옆에서 많이 알려주신결과 내가 프로그램을 만지는 실력은 많이 향상되었다 . 아직도 처음에 프리미어로 과제물을 제출했을 때 그 뿌듯함이 아직까지 전해진다 .일러스트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에프터이펙트로 인트로를 만들었을 때, 교수님들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개발원 생활도 마음에 들어 정말 학교 생활과 180도로 변한 나의 생활이 개발원을 바탕으로 사람관계도 좋아지고 인성도 발달한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처럼 경기인력개발원에 입소하고 나서 1년전하고는 많은 것이 변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경기인력개발원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추후에 더욱더 좋은 인력으로 사회에 뛰어 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경기인력개발원에게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에 대한 첫 단추를 끼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